10.15686/fkl.2024..62.330

여성문학사 쓰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경하,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김수영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21세기 최초의 한국 고전여성문학사
2 ‘여성/문학/사 쓰기’에 대한 깊이있는 고찰
3 ‘어문생활’ 중심의 여성문학사 서술
4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1 21세기 최초의 한국 고전여성문학사

이제 한국여성문학사가 필요하다는 공론은 지난 세기말부터 들려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은 2023년, 마침내 이경하 교수의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전근대 시기 한국 여성의 어문생활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21세기 최초의 한국 고전여성문학사이다.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는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책의 제1~3부가 '이론'에 해당되고 제4부가 '실제'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제1~3부는 저자의 학위논문(「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을 근간으로 한 것이고, 제4부는 그 후속 연구들을 토대로 저자가 조선시대 한국여성문학사를 새로 저술한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이 책을 제1·2부와 제3·4부의 두 파트로 나누어 읽는 독법도 가능할 듯하다. 이 경우 책의 전반부는 '여성문학사 쓰기'에 내재된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후반부는 '한국 고전여성문학사 쓰기'를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 및 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2 '여성/문학/사 쓰기'에 대한 깊이있는 고찰

이 책에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거시적 스케일로 펼쳐지는 저자의 지적인 탐구 과정이다. 책의 제목을 보면 언뜻 조선시대 여성문학사만 다룰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이런 예상과 달리 저자는 조선여성문학사 서술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방법의 모색을 위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 세르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 20세기에 출간된 여성문학사 및 여성글쓰기사 관련 논저들을 폭넓게 살폈다. 특히 제1부와 제2부에서 세계 여러 나라 여성문학사의 서술대상, 서술체계, 시대구분 등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조사와 탐구는 무엇보다 여성문학사 서술에 도전하는 문학사가(文學史家)가 공통적으로 당면할 만한 원론적 물음을 풀기 위함이다. 저자

는 ‘여성문학사’의 ‘여성’이란 무엇인지, ‘문학’이란 무엇인지, ‘사’(史)란 무엇인지를 계보적·이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여성문학사의 개념과 범주, 방향과 의의를 탐구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저자는 여성문학사 서술이 “문학활동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기억과 문학을 통해 구성되고 전달되는 여성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며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성별화된 주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69쪽)이라고 말한다. 또한 여성문학사 서술이 기존의 자국문학사 서술을 보완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학사를 다시 쓰는 일”(79쪽)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 의의를 부여했다.

이러한 총론에 이어 저자는 여성문학사 서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돌파해야 하는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각론을 펼쳤다.

첫째는 ‘여성문학 전통’이라는 문제다. 저자는 과거 여성문학의 일부만을 ‘위대한 전통’으로 내세우는 서술 태도를 지양하고 이전과는 다른 가치를 구현하는 ‘대항정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여성문학특질을 논의할 때 ‘여성성’의 의미가 비역사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는 ‘여성주의 시각’이라는 문제다. 저자는 학문 활동이 지식 생산에 관여하는 정치적 행위임을 전제하며 젠더를 기준으로 한 탐구가 오히려 학문의 객관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만 여성주의 시각에 입각한 여성문학사 서술이 자칫 감상주의에 빠지거나 과도한 목적의식에 경도되는 것 둘 다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1970년대 영미의 여성문학사 서술에서 드러난 백인·중산층·이성애 중심 여성주의 시각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서구보다 여성문학사 서술이 먼저 시도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이 미미했던 중국과 일본의 특수성을 역사적으로 살폈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적 시각과 역사서술의 객관성이 의미있게 결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셋째는 ‘여성문학사의 시대구분’이라는 문제다. 여성문학사가 자국문학사의 시대구분을 그대로 수용해도 좋은가? 저자는 어느 한 시대가 기존의 한국문학사 서술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여성문학사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면서 “특히 한글 창제의 의미는 한국문학사 전체에서보다 여성문학사에서 훨씬 크다”(183쪽)고 평가한다. 따라서 기존에 마련된 자국문학사의 시대구분법과 다른, 여성문학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시대구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어문생활’ 중심의 여성문학사 서술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 고전여성문학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저자는 여성문학사 서술의 기본 방향을 ‘어문생활사’(語文生活史)에서 찾는다. 저자는 “‘문학’을 ‘어문생활’의 개념으로 재규정”(187쪽)한다. 어문생활이란 “어문활동의 주체가 기존의 텍스트를 소비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 전체이며 동시에 그 텍스트들”(188쪽)이다. 이런 제안은 창작을 ‘생산’으로, 작가를 ‘어문활동의 주체’로, 문학작품을 ‘어문활동의 생산물’로 바꾸어 부르자는 논의로 이어진다.

이처럼 저자가 문학 개념의 외연을 확장해 사용하는 대신 ‘어문생활’이라는 별도 용어의 사용을 새로 제안한 이유는 이 접근법이 여성의 어문활동과 여성담론을 문학사 서술에서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즉 ‘여성작가문학’ 및 ‘여성문학활동의 역사’에 ‘여성담론의 역사’까지 더해 포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어문생활사’라는 광의의 용어 사용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토대로 저자는 “사건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255쪽) 방법을 설계했다. 이 서술 방법은 20세기 문학사 서술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왕조나 세기 전환을 문학사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문학사가가 판단하기에 여성의 어문활동이나 여성담론에서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선택해 연대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여성어문생활사의 시대적 변화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 책의 제4부는 저자가 직접 ‘사건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 방법’으로 쓴 ‘어문생활’ 중심의 조선여성문학사이다. 이 문학사(이하 『조선여성문학사』의 제4부만 지칭함)에서 먼저 주목되는 성취는 여성문학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기존 한국고전문학사에서 간과하거나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조선시대 여성들의 다양한 어문활동 양상을 밝힌 점이다. 저자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사료들을 다시 읽어냄으로써 당대 여성의 어문생활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새로 발견하거나 재해석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문학사에서 주목되는 성취는 조선시대 어문생활 속 ‘젠더권력관계’를 밝히는 데 각별히 유의함으로써 여성주의적 시각이 돋보이는 문학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혜왕후(昭惠王后)의 한글 의지(懿旨) 관련 고찰이나 홍석주(洪奭周)가 영수합(令壽閤) 서씨(徐氏)

를 기려 쓴 「정경부인행장」(貞敬夫人行狀)의 분석 등에서 언어·문자 간의 권력관계 및 계층·젠더에 내재된 사회적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 돋보인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사는 '문학작품이 잘 보이지 않는 여성문학사'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누군가가 '이 문학사를 읽고 나서 새로 주목하게 된 조선시대 여성문학작품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바로 답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나의 경우, 한글이 창제된 지 불과 10년 뒤인 1453년에 조선왕실의 하층계급 시녀인 묘단이 한글을 익혀 편지를 써 보낸 사건 같은 흥미로운 일화들은 생각나지만, 이 문학사를 통해 재발견하거나 재해석하게 된 감동적인 여성문학작품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는 저자가 택한 연구방법론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닌가 한다. 저자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문화이론을 주요하게 참조하면서 '문학연구'를 넘어 '문화연구'로 나아가는 여성문학사를 기획했다. 아울러 저자는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문학'을 '시적 언어'라는 새 용어로 재명명한 일을 거론하면서, 용어의 재명명이 관습적 사고를 넘어 혁신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일이라고 평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기 어려운 차이점이 있다. 크리스테바가 자신의 재명명을 토대로 저술한 책의 제목은 주지하듯 '시적 언어의 혁명'[1]이며 '문학의 혁명'이 아니다. 그와 달리 이경하 교수가 택한 책의 제목은 '조선여성문학사'이며 '조선여성어문생활사'가 아니다(제4부의 제목도 '조선여성문학사의 실제'이며 '조선여성어문생활사의 실제'가 아니다). 즉 '조선여성문학사' 서술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조선여성어문생활사'를 지향한 것, 그리하여 '문학사 서술'과 '문화사 서술' 사이에 간극이 생긴 것이 이 문학사에서 문학작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까닭으로 생각된다.

4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경하 교수가 힘써 연 한국 고전여성문학사 쓰기의 바통을 이어받고자 한다면 우

1 Julia Kristeva, *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 l'avant-garde à la fin du XIXe siècle, Lautréamont et Mallarmé*, Paris: Éditions du Seuil, 1974.

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몇 가지 단상을 간략히 말해 본다.

일단 한글 창제 이전 시기의 한국 고전여성문학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경하 교수는 한글이 반포된 1446년 이후부터 근대 이전까지를 문학사 서술의 대상 시기로 삼았는데 마땅히 그 앞 시기도 다루어야 한다. 이경하 교수가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를 다시 읽어냈듯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 앞 시기의 주요 사료와 문헌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다시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른 시기의 한국신화, 전설, 시가, 구전문학 등에 나타난 '여성 표상'에 대한 사적(史的) 조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 표상'을 고찰하는 일은 비단 여성작가의 작품이 희소한 앞 시기 문학사 연구에 한정된 과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덴동어미화전가」는 오랫동안 여성가사 작품의 수작으로 꼽혀 왔다. 그런데 그 작자가 '석창'(石窓)이라는 호를 쓴 남성이라는 사실이 근래 밝혀졌다.[2] 이에 대해 이경하 교수는 "(「덴동어미화전가」가-인용자) 전형적인 여성 작품으로 간주되어 온 만큼 충격이 컸다. 그만큼 작가의 성별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359쪽)고 평했다. 이제 「덴동어미화전가」는 여성작가 중심 시각의 '전통비평' 차원에서 논의되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 작품이 조선후기 하층계급 여성 삶의 리얼리티를 빼어나게 드러낸 작품으로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전히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작가 성별의 이분법적 구분을 뛰어넘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여성 표상'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조망하고 포괄하는 고전여성문학사 서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 고전여성문학사가 기존의 한국고전문학사 서술을 보완하고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학사를 다시 쓰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작가 및 여성문학작품에 대한 지속적 발굴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경하 교수의 한국 고전여성문학사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크지만 다소 '얇은' 한국 고전여성문학사다. 지난 20여 년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한국 고전여성문학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문학의

2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의 작자 문제」,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면모는 여전히 충분히 다 밝혀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허난설헌(許蘭雪軒) 같은 저명 시인의 경우에도 그녀가 쓴 시 전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텍스트 해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근래 한시 작품이 대거 발견된 하층계급 여성 시인인 설죽(雪竹)의 시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꾸준히 축적해 감으로써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대항정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색과 더불어 한국고전문학사 전체에서 이른바 '위대한 정전'으로 손꼽혀 온 작품들에 대해 비판적 재해석이 한국 고전여성문학사 서술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예를 들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구운몽』의 '편력 구조'는 어떻게 재해석·재평가되어야 하는가? 요컨대 '대항정전'의 모색과 기존 '정전'의 재해석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한국 고전여성문학사 서술이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2차 문헌에 해당되는 다른 연구자들의 논저를 종합해 집필하는 문학사 서술의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서술 방법은 방대한 문학사를 집필하는 데 효과적인 면이 있지만, 참조한 2차 문헌에 오류가 있더라도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문학사가(文學史家) 자신이 직접 텍스트[3]를 읽고 연구한 내공의 축적이 없는 한 기존의 논의를 넘어선 더 높고 새로운 전망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는 문학사가(文學史家)가 직면한 하나의 큰 난제다. 따라서 차후의 여성문학사 서술에서 이 점의 돌파가 한 중대한 관건이 되리라 본다.

당장 현실의 분과학문 체제를 고려할 때 전(全) 장르를 망라하는 한국 고전여성문학사 서술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장르별로 통시적 고찰을 시도하는 고전여성문학사도 좋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계급'이나 '로컬리티'와의 교차성을 고려한 또 다른 형식의 고전여성문학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선여성문학사』가 앞서 낸 길을 따라 다채로운 시각에서 더 넓은 지평을 열어주는 한국 여성문학사 저작들이 21세기의 남은 시기에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3 여기서 '텍스트'는 문학작품만을 지칭하지 않으며 이경하 교수가 제안했듯 어문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로 확장될 수 있다.